

# “建築文化 一般論·序Ⅱ”

박 영 호 (건축환경동인·의전대표)

## ■ 文化의 盛衰 一般

건축물을 産業生産品과 같은 物質文明으로만 생각하려는 일반의 견해에 대해서 새삼 文化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흔히 文化를 生命體에 비유하기도 한다. 文化要素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앞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명체로서의 하나의 樹木에 비유한다면 여기에 대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結實을 가리건, 어느 줄기 어느 가지의 성김과 무성함·병약함과 건강함을 가리건 수목 전체로서의 영향상태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인으로서의 建築文化에 대한 관심은 일반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의 일부인 것이며, 그 자신이 일반문화 血脈에 해소되지 않고서는 성장을 위한 生命力을 공급받을 수 없음을 안다.

文化가 生命을 지닌다는 말은 그 자체로서 發生·成長·衰頹·死滅의 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어버이文化·자식文化라는 표현이나, 西歐의 沒落 또는 文明의 危機에 대한 견해는 바로 살아 움직이는 文化의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한다.

우선 수고를 돕기 위하여 文化에 대한 저간의 견해를 더듬어 본다.

“文化란 社會的 條件形成(Social Conditioning)을 통하여 습득한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文化가 表出하는 무수한 外形의 모습이 아니라 한 문화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국민정신 내지 時代精神의 내용이다(金泰吉의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에서). 단적으로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서 精神의 중요함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藝術을 文化의 꽃이라고 하는데는, 자체로서 정신이 전부인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文化와 文

明을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의 Culture나 Civilization이라는 두말이 지금에 이르러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精神을 떠난 人間活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데 주목한다면 어느 전문가의 구구한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文化는 민족 대내외적 활동의 産物이나, 그 質은 精神의 優劣로서 가름하여 진다는 暗示를 받게 된다.

政治形態·經濟形態·制度의 종류가 그 文化의 內面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님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가 建築文化의 眞實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制度를 만들어 낸 사람, 이를 운용하는 사람, 建築物을 기획·설계하는 사람의 精神的 특질이야말로 총체로서 文化의 질을 좌우하는 要諦다. 이러한 것이 제도나 규율 또는 건축물·산업생산품이나 都市環境의 밑바닥에 진실되어 흐르고 있을 때 文化的 成長의 참모습을 대하게 된다. 世界史上 文化的 盛衰커브와 技術의 進退커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歷史의 研究」 見解는 그러한 점의 이해를 돕는다. 技術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精神的인 성장이 결여되어 있을 때 文化的 衰頹는 불가피한 것이며 기술이라 할지라도 참된 精神이 깃들어 있을 때에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대한 자본과 신통한 기술로서 쉽게 호감을 사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나 그 밑바탕에 도사린 건축철학의 健全함과 정신적 成熟함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의 文化的 역할이 의심스럽게 된다.

文化의 고급이니 저급이니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 先進國이니 후진國이니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최소한 동시대의 文化를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 문화적 성장이나 쇠퇴라 하는 표현도 한 문화의 力量이 쉬지 않고 달라지는 데

대한 견해라면 결국 우리는 시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수준을 말하여 오는 셈이다. 文化水準의 尺度는 한 나라 한 민족 문화주체의 총력에 에너지에 관한한 일거에 판단될 수 없다 하더라도 文化의 成長衰頹 일반현상을 고찰함으로써 評價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歷史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文化發展의 法則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왕의 견해로서 어떤 이는 旋律的인 모습을 말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週期的인 모습의 반복운동을 말할 수도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자연현상과 같이 똑떨어지는 一般法則의 사례로 간주된다면 歷史 그 자체도 살아지리라는 생각이다. 소위 역사법칙이라는 것이 지나 온 사례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 망정이지 그것이 현실과 未來로 연결되어 지는 宿命的인 것이라면 매우 참기 어려운 구속이다. 歷史가 영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측면에 선다면 역사 과정의 모든 사건은 딱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1983년 8월 24일 정오에 서경 135°, 북위 37°의 위치에서, 이 한번의 상황에서는 단 한번의 확실한 사건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딱 한번의 상황이 단 한번의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무렵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교연구를 한다면 盛衰에 관한 네미시스(Nemesis) 현상을 터득할 수 있겠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역사상 文化의 盛衰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現實과 未來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識見을 기를 수 있다면 그러한 고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은 수 많은 文化史上의 사례를 통하여 감히 문화발전의 法

則을 찾아 내려는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文化史의 수많은 상황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構造的 유사성을 찾아 내어 盛衰에 관한 標形(Pattern)을 제시한 토인비의 「歷史의 研究」를 통하여 그에 접근하려 한다.

적절한 挑戰과 이에 따른 적절한 應戰의 연속 과정이 성장이라 한다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衰落의 文化가 되겠으나 이 막연한 표현에 대하여 좀더 구체화 된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좋은 것(선한 것, 진실된 것, 새롭고 편리한 것 등을 총칭한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創造力이 卓越한 사람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우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라면 극소수의 창의적 역할이 허용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태어 난다 하더라도 이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社會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活力素로서의 創造行爲는 무의미한 것이며 뜻밖의 壁에 부딪쳐 버린다. 때로는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를 거부함으로써 熱帶에 내동댕이 쳐진 북극곰과 같은 운명이 된다. 결국 創意性이 우수한 소수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자와의 관계는 盛과 衰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見解를 도식

화해 보면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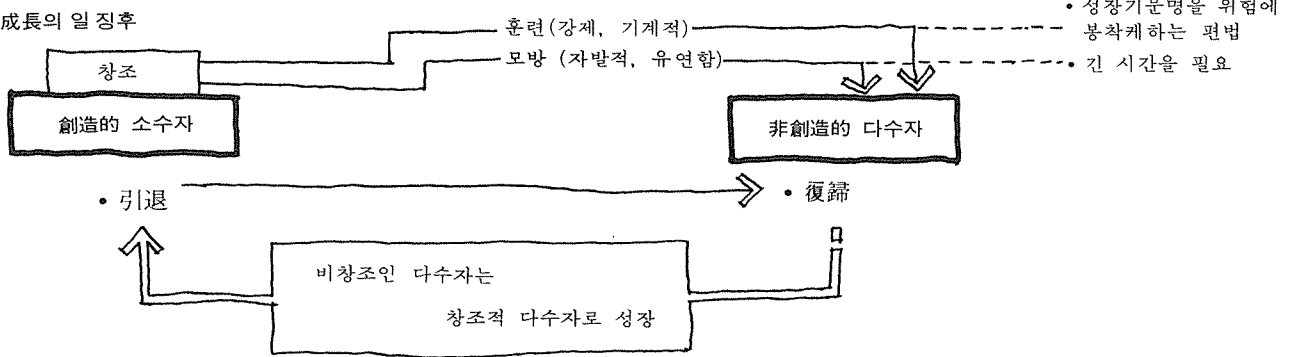
成長의 요건을 단적으로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은 이중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創造的 소수자의 創造行爲와 남은 자 전부가 그것을 받아 들여 그것에 順應하는 노력이다. 반면 衰頹의 징후는 그 반대현상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창조적 소수자의 출현이 없는 경우, 또한 그 人格을 다수자가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르려는 미메시스 노력을 철회하는 경우와 그 결과로서 생기는 전체로서 社會의 통일 의 상실 등은 쇠퇴의 중요한 특성이 다. 다른 한가지 경우로서는 첫번째 도전에 성공한 자가 다음번 도전에서 여지없이 실패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한쪽이 대비되어 있거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처음보다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모방을 철회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이지만 처음 도전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핸디캡이 되는 경우다. 또 다른 한가지 쇠퇴의 특성은 창조적 소수자와 비창조적 다수자와의 통로에 있다.

소수자의 創造行爲가 다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개개인의 훈련을 통해서나 개인의 자발적 미메시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대다수를 집단으로 훈련시키는 보충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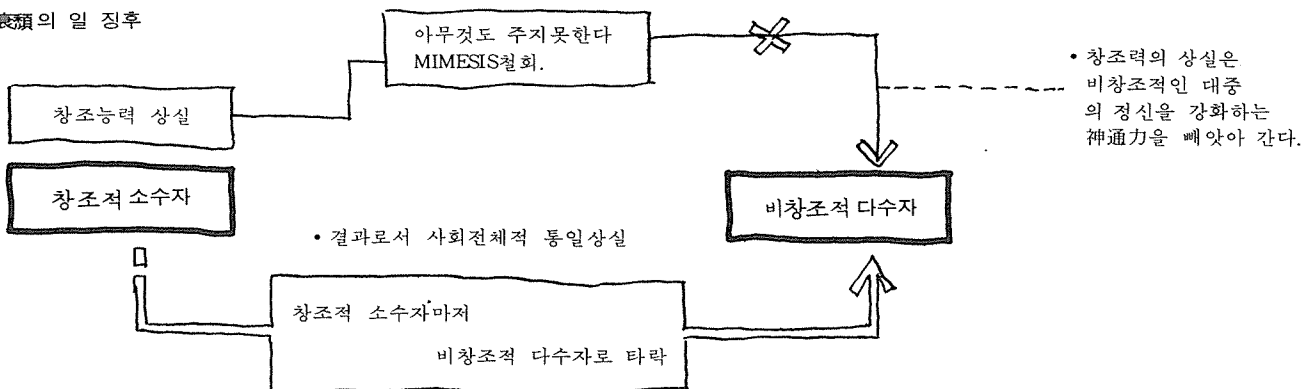
는데 이로 말미암아 미메시스는 機械性을 띄우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계성을 지닌 미메시스의 약점은 “그것이 밖으로 부터의 示唆에 대한 기계적인 反應이며, 따라서 행위자의 行爲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는 결코 행해지지 않는 점에 있다.……위험은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成長 유지에 필요한 조건은 부단의 柔軟性과 自發性이지 이에 반해 성장의 전체조건인 효과적인 미메시스에 필요한 조건은 상당 정도의 기계적 자동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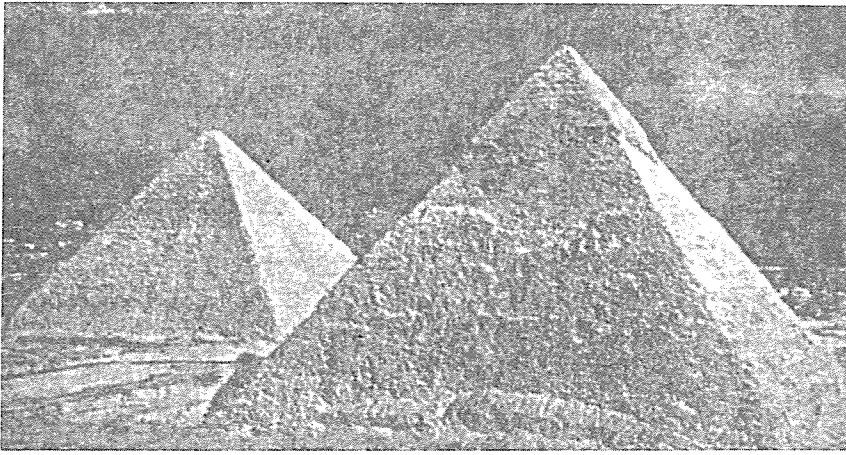
결국 成長을 위해서는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미메시스를 필요로 하나 일단 그 성장된 모습을 유지시켜 나아가는 데는 그 機械性을 다시 철회해야 한다. 物質의 精神에 대한 승리라던가, 人間이 자기가 만든 機械의 노예가 되는 경우, 文明社會에 있어서 人間性의 상실문제 또는 초기 성장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制度나 規律을 제정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시 새로운 創造的 소수자의 創意性을 무력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한다. 衰頹한 문명이 죽음을 만난 것은 刺客의 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예에 있어서 自殺에 의해서 었다는 토인비의 견해는 이로서 실감을 지닌다.

■ 成長의 일 징후



■ 衰頹의 일 징후





관대한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할까, 폭군적인 제우스의 역할을 할까. 그들은 피라미트를 세웠다. 이집트 사회는 피라미트 건설자들에 의해 지워진 건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쇠퇴·해체된다.

■ 東洋의 思考를 통해 본 文化盛衰

소위 中國文化圈의 여러 나라들이 文化의 盛衰에 대하여 어떠한 所見을 지니고 있었던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굳이 西洋과 구분하여 東洋의 思考를 지목하려는 데는 흔히 西洋의 合理的이며 實證的인 사고를 통하여 논술된 東洋적 價值觀이나 東洋의 전통적 關係에 접해 왔던 사실을 감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 헤로도투스의 歷史나 풀타크 英雄傳을 통하여 이해에 접근해 왔고 서양인에 의하여 저술된 世界史를 통하여 이에 접근해 왔던 때문이다.

흔히 보이지 않는 얼굴과 들리지 않는 소리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신비의 모습으로서의 東洋의 思惟 속에 그 자신의 盛衰에 대한 見解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단순한 사항에 우선 주목한다. 요즘과 같은 현대적 의미는 文化概念이 없었던 당시라고 하나, 소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나 저술을 통하여 그들의 興亡盛衰에 대한 소견에 접근하고자 한다.

「溫古而知新」이라는 論語의 한 귀절을 상기한다. 東洋 儒敎社會에서는 새로운 것, 創造에 관한 것의 의미는 매우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하더라도 반드시 옛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지니고 있다. 前편을 일관하여 서술하나 몇 귀절을 다시 인용한다면,

● 周나라는 二代를 살피서 그 文化가 매우 찬란하니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爲政·十四).

● 어찌 알지 못하고 創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述而·二十七).

● 옛것을 述하되 새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述而·一).

論語의 내용만으로는 文化의 성쇠에 관한 巨視的 指標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궁할 수 없다 하더라도 東洋 文化의 성쇠 곡선의 완만함과 創造 行爲에 대한 微溫의 태도나 어딘지 否定的인 느낌을 고려한다면 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 그것은 후일의 東洋社會의 비극적 운명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勢無三年에 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성쇠에 관한 소박한 哲理다. 個人의 一生을 통하여 民族의 歷史를 통하여 무수히 점철된 興亡盛衰의 자취를 돌아 본다면 더욱 그럴싸한 確信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독 東洋의 이라는 데 대한 確證을 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宿命的인 것으로 받아 드리려는 觀點에 대하여 東洋의 思考와는 親近感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順天者는 存한다”라든가 하는 儒家思想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天命的인 것, 順命的인 哲理는, 바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西歐人의 實證的인 思考와는 대치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장차 구부리려고 하면 잠깐 편다. 장차 약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잠깐 강하게 한다. 장차 폐하려 하면 반드시 잠깐 이르킨다” 이 老子의 이

야기를 바꾸어 말한다면, 일어난 것은 주저 않고 강한 것은 弱하게 되는데, 찬 달이 반드시 기울게 되는 宿命을 느끼게 한다.

로마帝國은 그것의 발생과 함께 이미 滅亡의 운명을 지녔다는 토인비의 견해는 東洋의 文化觀에서는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滅亡의 원인이 外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죽을 운명을 지닌 숨이 넘어가는 者의 숨통을 조인 것이지, 필대로 핀 꽃이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자기 滅亡의 운명을 스스로 지닌다는 東洋의 견해에서 더욱 그렇다.

老者的 道德經을 통하여 일관된 否定的 哲理를 새삼 논위할 바 아니지만 天命을 천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스스로의 입장을 逆說的으로 옹호함으로써 자기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카드를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莊子에 있어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다”, “無用의 用”, “이것에 대한 저것의 개념”과 같은 兩行論이나 佛敎에 있어서 “色則是空, 空則是色” 등 相反된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哲理는 親近感을 지닐 수 있으며, 內密한 울분을 달랠 수 있는 처방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들의 처지가 그러할 때 기울은 달이 다시 차리라는 기대, 陰地가 陽地가 될 날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작용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하리라고 생각된다.

儒敎의 대표적 경전인 易經은 “陽이 절정에 이르면 陰을 위해서 물러나고 陰이 절정에 이르면 陽을 위해서 물러난다”라고 역시 相反되는 立場의 주기적인 순환을 강조함으로써 자연과 人間의 興亡盛衰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的 觀點에서 그 發展이 무엇을 뜻하는 가를 생각하게 한다. 論語를 통하여서는 발전이라기 보다는 後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의 완만한 보편적인 성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도교에 있어서도 “衰하지 않으려면 盛하지 않으면 된다.”는 일단의 정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역시 완만하고 水平的인 성장을 생각하게 한다. 아울러 盛長한 것은 반드시 衰하고 衰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宿命的 文化論을 대한다.

● 굽으면 온전하고 굽히면 곧으며, 오목하면 차고 적으면 얻고... (老子·道經 22장).

● 하늘의 道는 높은 것을 누르고 낮은 것을 올린다... (道德經 77장).

황포한 자들의 다툼에 대한 경중으로서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지라도, 이러한 自然發生的인 현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라면 人間의 새로운 것, 變形된 것에 대한 소유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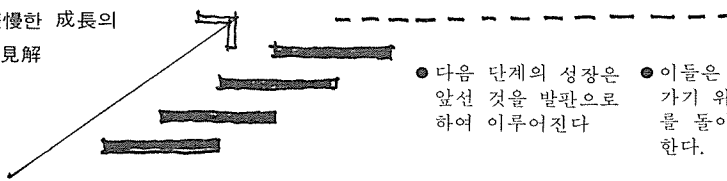
● 어진 것(仁)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을 다루지 않게 할 수 있다... (道德經 3장).

● 가지고 채우는 것이 이를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 두들겨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道德經 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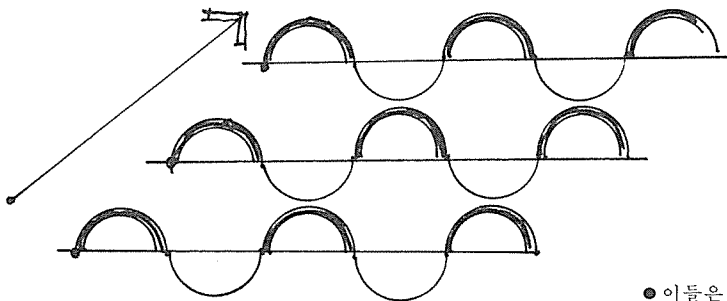
귀한 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賤한 것도 생기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미운 것도 생기지 않는다. 불룩한 것이 없다면 오목한 것도 없다. 전체로서 보편하게 하고 水平으로 되어야 한다는 思考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놓여 동일한 보조로 성장하는 文化的 水平을 암시한다.

요컨대, 그들은 새로운 것의 出現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 後日 西歐 近代文物의 유입에 의한 혼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 緩慢한 成長의 一見解



● 다음 단계의 성장은 앞선 것을 발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주 뒤를 돌아다 보아야 한다.



● 성장은 높고 낮음을 보완하여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 첫번째 단계의 높음은 다음 단계에서 낮음이 된다.  
●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 이들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이 높은 것인지 무엇이 낮은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 東西洋의 親和力

東洋과 西洋의 關係를 分析하기에

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엄청난 분야이어서 일거에 양자를 구분하여 논하려 함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또한 본질의 목표로 아니다. 身體나 生活慣習· 사고방식· 언어 등을 들지 않더라도 유사 이래 동서양의 상호 경쟁과 투쟁의 끊임없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상호 異質感을 실감하게 된다. 西歐人의 論理的인 思考를 통하여 東洋을 이해하려 하나 신비로운 베일 속에 쌓여진, 제한된 論理 밖의 모습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다.

直觀的이나 婉曲한 東洋的 所見에 대해서도 말꼬리를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이 있다. 다르다는 데 착안 한다면 달라 보인다.

● 東洋思想의 思惟形態는 主客을 초월한 통일적인 神秘的 直觀에 기초하고 있고 西洋思想의 사유형태는 主客의 분리에 의한 分析이고 개념적인 추론에 바탕하고 있다... 중국인의 사유형태는 中國語를 통하여 볼 때 單語의 총합적·특수적 성격 때문에 西洋의 言語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적 추상적 관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편적 언어와 같은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인은 視覺的 表象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말은 발달되었지만 다수의 개별자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편에

대한 무자각은 추상적 사유가 발달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金鎔貞의 “東

西思惟形態의 비교”에서).

● 四正諦·八正道·佛敎에서는 人生이 無常함을 가르치는 반면 기독교는 삶의 가치를 가르친다.

● 효도와 충성에 기초를 둔 大家族에 대하여 個人主義를 특색으로 하는 西歐의 獨立家庭을 이야기 한다.

● 東洋人들은 여자를 푸대접하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려 함으로써 西歐人과는 상대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 평생을 두고도 완전한 터득이 어려웠던 漢字가 남긴 결과는 글, 곧 學問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만들어 낸다. 글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도구나 연장을 만드는데 골몰하기는 어려웠다.

● 갈리아 征服으로 일거에 백만의 노예를 얻은 로마인과 文明時代에 아프리카 노예사냥과 매매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유태인 학살과 같은 충격적인 것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 東洋의 繪畫가 소위 三遠法으로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보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찰나적인 것, 한 순간의 스냅사진과 같은 밀레의 晚鐘은 충분히 비교된다. 安堅의 夢遊桃園圖에서 우리는 스토리를 읽는다. 반면 이삭줍기는 스냅사진과 같은 찰나적인 인상을 전해준다.

● 미켈란젤로의 다윗像은 숨이 막힐 듯한 완벽함에 도달한다. 반면 新羅人의 十一面觀音菩薩像에서는 차라리 보는 이로 하여금 차별한 모습의 여유를 지니게 한다.

● 피라밋이나 秦始皇陵과 같은 잔혹한 役事가 死者를 위해서 이루어진 점에 비교한다면 파르테논이나 판테온 神殿, 노틀담사원은 다른 차원에 선다.

● 東洋의 물에 대한 견해는 觀水有術이라는 말이 그러하듯 오묘한 이치를 지닌 自然의 일부로서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그 흐름은 모나지 않은 人生의 旅程을 느끼게 한다. 작은 돌을 굴리어 나아가고 더 큰 바위는 피해 간다. 가다가 독을 만나면 고여 다시 넘쳐 흐른다. 한결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大自然으로서 물이 지나는 여일한 원칙을 그냥 그대로 존중한다. 江으로서, 溪流로서, 沼로서 모두 ‘자연적 성장과 본래적 모습으로서의 흐름을 중요시 한다. 반

면 서양의 물에 대한 특징으로서 噴泉을 생각하게 한다. 물의 逆流란 본래적 모습이 아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뜻밖의 도전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에 대한 도전적 태도야 말로 患者의 몸에 메스를 가하여 내부를 조사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에 대한 분석도,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생각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주장도 자연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상 다르다는 생각을 앞세우므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東과 西의 몇가지 일반적 차이점에 접근해 보았다.

우선 東과 西의 地域的 구분을 언제·누가·왜·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소상한 내력을 덮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生活慣習이나 사고방식·認識의 차이를 통하여 동서구분의 자연스러움에 이른다. 더우기 페르시아전쟁, 칼타고전쟁, 알렉산더의 東西지배, 로마와 비잔틴 제국과 近世 이후 西歐 영향력 증대 등 상호 투쟁과 빈번한 주도권의 쟁탈과정을 살펴 볼 때 그러한 구분을 수증하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 경쟁적인 입장에서는 이질감이나 배타적 상호 관계가 고조된다 하겠으나 주도권의 빈번한 바뀐은 文化的 同化를 가능하게 한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따른 宗教上의 一體感이나 헬레니즘 文明, 또한 로마나 비잔틴제국의 동서의 영향력은 그러한 경우의 예다. 희랍 神殿이 있는가 하면 터키사원이 있고 페르시아·마케도니아·그리스·로마·이스람의 東西 공존이 이루어 짐으로써, 이 이질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낫설지 않게 느껴진다. 혹자는 그리스 미술의 요소가 페르시아·인도·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에 건너가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物質로 나타나는 유사성은 동양의 상당한 지역에 걸쳐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상호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精神的인 면에서의 유사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말로 한다면 尊嚴性을 지닌 人間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喜怒哀樂에 대한 感情이 동일한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이 동일하다는 점은 사고방식이나 사유태도나 가치관이 동일하다

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다르다는 관점에서의 동서에 대한 견해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도에서다.

이것은 人類의 平和와 幸福,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博愛主義者와 같은 입장에 비견하자는 점이다. 사실 이질감이나 價值觀의 차이는 결국 현실적 親和力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살피려는 의미 외에 별다른 이유를 갖지 않는다. 人類은 人口問題·食糧問題·環境문제 등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사실 다르다는 생각을 거두어 둔다면 教育·宗教·思想·政治·經濟 등 여러 분야에서의 親和力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盛衰에 관한 논리로서 토인비의 挑戰과 應戰의 경우는 東西洋에 공통되게 나타난다. 실체로서 道德經이나 易經의 것은 서구 문명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기독교의 聖經에서 散見된다.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 23 : 12).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태 5 : 3, 4, 5).

●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첫째)로서 나중(끝치)되리라(마태 20 : 16).

이러한 몇 귀절만으로 基督教 思想이 道家的 견해와 일치함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증할 여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점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귀절과 “두들겨 날카롭게 하여 무엇에 쓰리오”는 전연 상반된다(사실 거의 모든 점에서 다르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해 道家는 無為自然을 이야기 할 뿐이다). 서로 다른 文化史의 배경과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東西는 近世 이후 다른 한쪽의 일방적 열세로 말미암아 또한번 文化的 동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50년 전의 한국의 모습이 불과 10년 전의 아메리카의 모습과 보다 낫설게 느껴지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필경 현대문명에 의한 급

속한 동화현상 때문이다.

西歐文明은 그 文明의 利器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現代를 지배하는 문화적 위세를 지니게 된다. 반대로 東洋의 입장에서는 劣勢의 원인을 스스로의 내부에서 찾아 보려는 省察이 필요했고 폐쇄나 개방의 연속된 우여곡절을 통하여 결국 서구인의 논리적·실증적·합리적인 태도를 우세에 대한 네미시스로 수증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世界로 보면 하나의 統一이라고 이를만한 일찌기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거의 모두가 자동차를 타는 것, TV·냉장고·세탁기 등의 생활용구와 합성제품의 동일한 패션·헤어스타일 및 거의 모두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세계 곳곳의 일을 일상으로 접하게 된 바와 같은 일체감은 일찌기 없던 유사성을 낳게 한다. 또한 단순히 東西간의 거리감은 교통수단이나 형상적인 면이나 생활방식에서 바뀌어진 것은 아니다. 그 바탕의 흐름에 精神的 유사성을 지니게 되는, 즉 東洋人 스스로가 서양인의 사고방식이나 論理的 태도를 이미 감안할 수 있는 훨씬 폭넓은 여유를 지니게 된다. 반면 西洋의 입장에서 그들의 論理的·合理的인 사고의 틀이 어떤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다면, 의당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東西思想의 비교연구가 활발하다는 저간의 이야기는 그들의 공백을 메우므로써 새로운 동화를 모색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실 同化나 統一이란, 이런 경우의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상호 장점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親和力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에 해당한다. 人文·社會·自然·藝術 등의 국제적 交流라는 것은 나의 우수한 점을 상대에게 보여 주려는 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흡사 올림픽이 참가함으로써 의의를 찾는 것과 같이 공동의 목표에 대한 親和力의 발견이야말로 人類가 공동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活力素로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죽어가고 오염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으로 황폐해 가는 “우주선 지구호”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地域과 특정민족에 한정될리 없기 때문이다.